



성구이야기

제 2 책

최홍수 편역



연변인민출판사

성구의이야기

제 2 책

최홍수 편역

연변인민출판사

책임편집: 최 훈

책임교정: 신숙자

图书在版编目(CIP)数据

成语故事. 第2集/崔兴守编著. -延吉: 延边人民出版社, 2006. 12

ISBN 7-80698-833-5

I. 成... II. 崔... III. 汉语-成语-故事-朝鲜语
(中国少数民族语言) IV. H136.3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 (2006) 第152328号

出版: 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 <http://www.ybcbs.com>)

印刷: 延边新华印刷有限公司

发行: 延边人民出版社

开本: 850×1168 1/16 印张: 8.25 字数: 178千字

标准书号: ISBN 7-80698-833-5(民文)

版次: 2006年12月第1版 2006年12月第1次印刷

印数: 1000册 定价: 14.00元

如发现印装质量问题, 影响阅读, 请与印刷厂联系调换。

머 리 말

중화성구는 중화민족의 기나긴 력사의 흐름속에서 점차 이루어진 독특한 언어 표달형식으로서 가장 간결한 언어로 사람들의 풍부한 사상, 정감과 행동거지 그리고 사물의 리치를 가장 정확하고도 완미하게 표달하였다. 중화성구는 중화민족언어의 정화이고 언어문자보물고에서도 가장 진귀한 보물로서 모든 인류가 공동으로 소유할만한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중화성구를 알맞게 사용하면 그 말이나 글이 더욱 생동해지고 차원이 훨씬 높아지게 되며 따라서 그 사람의 문화지식수준이나 품위가 한결 돋보이게 된다.

중화성구가운데는 성구이야기가 적지 않은데 정치, 경제, 군사, 력사, 외교, 과학기술, 철학 등 다방면의 지식이 내포되어있다. 그 성구이야기들은 혹은 력사사실로부터, 혹은 고대우화로부터, 혹은 전고로부터, 혹은 민간이야기로부터 유래되어 몇천년을 내려오면서 그 매력을 잃지 않고있다.

우리는 이 책을 편찬하면서 사상성, 지식성, 취미성이 짙은 성구이야기를 선택하고 거기에 성구의 병음과 한자 새김, 우리 말과 뜻풀이 그리고 이야기를 ABC순으로 수록하였다.

성구이야기가 우리 조선민족의 문자로 이 책처럼 많은 분량에 다양하고 재미있게 엮여지기는 처음이다. 이 책이 여러 청소년독자들의 문화지식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많은 독자들이 두고두고 애독하는 책으로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편자로부터

2006년 8월

차 례

D

大公无私	대공무사		(1)
大逆不道	대역부도		(2)
大器晚成	대기만성		(3)
大树将军	대수장군		(4)
大喜过望	대희과망		(5)
大义灭亲	대의멸친		(6)
倒履相迎	도리상영		(8)
倒行逆施	도행역시		(9)
道不拾遗	도불습유		(10)
道听途说	도청도설		(11)
得过且过	득과차과		(13)
得陇望蜀	득룡망촉		(14)
得心应手	득심응수		(15)
滴水穿石	적수천석		(16)
东施效颦	동시효빈		(18)
洞见症结	동견증결		(19)
动辄得咎	동첩득구		(20)
独当一面	독당일면		(21)
妒贤嫉能	투현질능		(22)
杜渐防微	두점방미		(23)
断机之教	단기지교		(24)
对症下药	대증하약		(25)
多多益善	다다익선		(26)
多歧亡羊	다기망양		(27)

E

阿谀奉承	아유봉승		(28)
------	------	-------	------

尔虞我诈	이우아사	(29)
二桃杀三士	이도살삼사	(31)

F

发蒙振落	발몽진락	(33)
发踪指示	발종지시	(34)
翻然悔悟	번연회오	(35)
反客为主	반객위주	(36)
方寸已乱	방촌이란	(38)
放虎归山	방호귀산	(39)
飞蛾赴火	비아부화	(40)
非驴非马	비려비마	(42)
非同小可	비동소가	(43)
分道扬镳	분도양표	(45)
分庭抗礼	분정항례	(47)
焚书坑儒	분서갱유	(49)
奋不顾身	분불고신	(50)
风吹草动	풍취초동	(51)
风马牛不相及	풍마우불상급	(52)
风声鹤唳	풍성학려	(54)
奉公守法	봉공수법	(55)
扶老携幼	부로휴유	(56)
釜底游鱼	부저유어	(57)
负荆请罪	부형청죄	(58)
妇人之仁	부인지인	(59)
覆水难收	복수난수	(60)

G

改过自新	개과자신	(61)
改名换姓	개명환성	(62)
肝胆相照	간담상조	(63)
感激涕零	감격체령	(65)
高材疾足	고재질족	(67)
高阳酒徒	고양주도	(68)

割席分坐	할석분좌		(69)
苟延残喘	구연잔천		(71)
姑息养奸	고식양간		(72)
刮目相看	팔목상간		(73)
挂羊头, 卖狗肉	괘양두, 매구육		(75)
管鲍之交	관포지교		(76)
光彩夺目	광채팔목		(77)
贵人多忘	귀인다망		(78)
国土无双	국사무쌍		(79)
过门不入	과문불입		(80)

H

邯郸学步	한단학보		(82)
好逸恶劳	호일오로		(83)
鸿鹄之志	홍혹지지		(84)
后顾之忧	후고지우		(86)
后起之秀	후기지사		(87)
后生可畏	후생가외		(88)
狐假虎威	호가호위		(89)
囫囵吞枣	홀룬탄조		(91)
虎口余生	호구여생		(92)
华而不实	화이불실		(93)
画龙点睛	화룡점정		(93)
画蛇添足	화사첨족		(94)
黄粱一梦	황량일몽		(95)
回天之力	회천지력		(97)
悔过自新	회과자신		(98)

J

机不可失	기불가실		(99)
鸡口牛后	계구우후		(100)
鸡鸣狗盗	계명구도		(101)
积羽沉舟	적우침주		(103)
疾风知劲草	질풍지경초		(104)

艰难险阻	간난협조		(105)
兼听则明, 偏信则暗	겸청즉명, 편신즉암		(106)
将功赎罪	장공속죄		(108)
交头接耳	교두접이		(109)
焦头烂额	초두란액		(111)
胶柱鼓瑟	교주고슬		(112)
脚踏实地	각답실지		(113)
嗟来之食	차래지식		(114)
结草报恩	결초보은		(115)
金石为开	금석위개		(116)
金玉其外, 败絮其中	금옥기외, 패서기중		(118)
惊弓之鸟	경궁지조		(119)
橘化为枳	귤화위지		(120)
举案齐眉	거안제미		(122)
卷土重来	권토중래		(123)

dà gōng wú sī 대공무사 大 公 无 私

[한자 새김] 큰 대, 공평할 공, 없을 무, 사사로울 사

[우리 말] 대공무사하다. 사심이 없고 공정하다.

[뜻풀이] 공평하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정직하여 사사로운 일에 구애받지 않음을 비겨 이르는 말이다.

[출처] 《려씨춘추 · 거사》

[이야기] 진평공이 재워할 때 남양현령이 공백이었다. 이에 평공이 대부 기황양보고 이 현령에 누가 적합하겠는가고 물었다.

《해호가 될것 같습니다.》

《해호는 그대의 원쑤인데 어찌 원쑤를 추천하는고?》

《주상께서는 누가 그 현령에 적합하겠는가고 물으셨지 누가 소인의 원쑤 인가는 묻지 않으셨사옵니다.》

이에 평공은 해호를 남양현령으로 봉하였다. 과연 기황양이 예측한대로 해호는 현령으로 된후 백성들을 위해 실제적인 일과 좋은 일을 많이 하여 남양 백성들의 옹호와 애대를 받았다.

또 한번은 조정에 군중위가 수요되어 평공이 기황양보고 적합한 사람을 추천하라고 하였다.

《기오가 적합하옵니다.》

《기오라면 그대의 아들인데 남의 말밥에 오르는게 두렵지 않은고?》

《주상께서는 소인더러 군중위에 적합한 인물을 추천하라고 하시였지 소인의 아들에 대해서는 묻지 않으셨사옵니다.》

이에 평공은 기오에게 군중위직무를 맡기었다. 기오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직무를 충충히 수행해나갔다.

이 소식을 들은 공자가 감개무량하여 말하였다.

《기황양이 인재를 추천함에 있어서 밖으로는 원쑤를 배척하지 않고 안으로는 친아들도 회피하지 않으니 실로 대공무사하구려!》



dà nì bú dào
大逆不道

대역부도

※ 《大逆无道》라고도 한다.

[한자 새김] 큰 대, 거스를 역, 아닐 부, 리치 도

[우리 말] 리치에 어긋나다, 도덕에 어그러지는 반역행위, 대역무도, 대역부도.

[뜻풀이] 어떤 소행이나 죄악이 고유한 질서나 규범을 훨씬 벗어났음을 비겨 이르는 말이다.

[출처] 《한서·고제기》

[이야기] 진나라가 멸망된후 류방과 항우는 5년이나 되는 초한전쟁을 벌리었다.

하루는 항우가 진두에서 류방에게 판가리를 하자고 소리쳤다. 이에 류방이 대답하였다.

《처음에 나와 너는 초희왕의 어명을 받들고 먼저 관중을 평정하는 사람이 왕으로 된다고 약정하였다. 그런데 내가 먼저 관중을 평정했는데도 너는 약속을 어기고 나를 파촉에 가서 한왕으로 되라고 하였다. 이것이 너의 첫번째 죄상이다. 너는 조나라군사를 구원하러 가는 도중에 상장군 송의를 살해하고 상장군으로 자칭하였다. 이것이 너의 두번째 죄상이다. 너는 희왕의 어명을 거스르고 제마음대로 여러 제후국의 병마를 협박하여 입관시켰다. 이것이 너의 세번째 죄상이다.》

뒤이어 류방은 또 항우가 진나라궁전을 불태우고 진시황의 무덤을 파헤치고 재물을 수탈하고 항복한 진왕 자명을 살해하고 투항한 진나라병사 20만명을 생매장하고 의제를 살해한 등 죄상을 폭로하고나서 열번째 죄상을 언급할

때 이렇게 말하였다.

《너는 신하로서 임금을 살해하고 또 투항한 사람들도 살해하고 정사가 불공평하고 이미 정한 약속도 지키지 않아 천하가 용납할수 없는 대역무도한 놈이다. 네가 이런 열가지 큰 죄를 지었기에 내가 의병들을 일으켜 역적인 너를 토벌하러



왔거늘 내가 무슨 험치로 나에게 도전한단 말이냐!»

류방의 말을 들은 항우는 분김에 몸을 부르르 떨었다. 항우가 궁노수에게 활을 쏘라는 령을 내렸다. 화살이 류방의 앞가슴에 꽂혀 한나라군사는 할수없이 철거하였다.

dà qì wǎn chéng 대기만성 大器晚成

[한자 새김] 큰 대, 그릇 기, 저물 만, 이를 성

[우리 말] 크게 될 사람은 늦게 성공한다. 대기만성.

[뜻풀이] 큰 그릇은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을 들인 뒤에야 완성된다는 뜻으로서 큰 인재는 흔히 장기간의 단련을 거쳐 늦게 성공함을 형용하는 말이다. 또한 장기간 뜻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의 위안의 말로도 쓰인다.

[출처] 《로자》, 《삼국지·위지·최염전》

[이야기] 《최대의 사각은 지나치게 크므로 그 모퉁이가 보이지 않을 정도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최고의 가치가 있는 그릇은 다른것보다 늦게 완성된다.》

이는 로자의 말이다. 로자는 큰 그릇은 덜된것처럼 보인다고 말하였다. 즉 원래 위대하고 훌륭한것은 보통사람의 눈이나 생각으로는 어딘가 덜된것 같이 느껴진다는것이다.

《대기만성》이 인물에 대해 쓰이는것은 《삼국지·위지·최염전》의 이야기에서 비롯하였다.

동한말년에 원소의 문객으로 최염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어릴 때 검술을 좋아했고 23세가 되어서야 《론어》, 《한시》를 읽기 시작하였는데 열심히 읽었기에 학식수준이 상당히 높았다.

그때 원소의 군사들은 군기가 문란하여 한 지역을 공략하면 그 지역의 무덤들을 마구 파헤쳤다. 최염이 원소에게 말하였다.

《예로부터 인의를 갖춘 군사는 무덤을 파헤치는 잔인한 소행을 저지른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사들이 그러고있으니 세상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낼것입니다. 이는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이 말을 듣고 최염의 사람됨을 알게 된 원소는 최염을 기도위로 임명하였다.



관도에서의 싸움에서 원소가 패배하고 최염은 포로되었다. 최염은 조조의 수하에서 조조에게 훌륭한 계책을 많이 대주었다.

최염이 상서로 있을 때 조조가 조식을 태자로 세우려 하니 최염이 반대하였다.

《자고로 장자를 태자로 세우는것이 규례로 되었는데 어찌 조식을 세우려 하시옵니까?》

기실 조식이 최염의 조카사위인데도 최염은 편애하지 않았다.

이에 조조가 매우 탄복하였다.

최염에게는 최림이라는 사촌동생이 있었다. 최림은 젊었을 때 아무런 성과도 명성도 없었다. 하여 친척이나 친구들한테서 마보취급을 받았다. 그런데 최염은 최림이를 그렇게 보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큰 인물은 오랜 시일을 거쳐야 큰 그릇으로 된다. 최림은 꼭 큰 그릇으로 될 사람이다.》

후에 최림은 과연 주부, 여사대부로 되었고 위문제때에는 사공이란 벼슬에 오르기까지 하였다.

dà shù jiāng jūn 대수장군 大 树 将 军

[한자 새김] 큰 대, 나무 수, 장수 장, 군사 군

[우리 말] 공로를 자랑하기 싫어하는 장령.

[뜻풀이] 공로를 세우고도 교오하지 않고 자기 공로를 자랑하려 하지 않음을 비겨 이르는 말이다.

[출처] 《후한서 · 풍이전》

[이야기] 풍이는 동한때 사람이다. 그는 독서를 즐겨 《좌씨춘추》, 《손자병법》을 통달하였다. 한나라 광무제 류수의 수하에 편장군으로 있으면서 흉노에 항거하였고 할거세력을 제거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놀았다.

풍이는 아주 겸손하였다. 그는 전공을 많이 세웠지만 상급이나 하급, 친구

나 친척 앞에서 자기의 공로를 말한적이 없었다. 길에서 다른 장군과 마주칠 때면 언제나 길을 비켜주곤 하였다. 그의 부하들이 내키지 않아 말하였다.

《우리는 풍장군께서 다른 장군들한테 길을 양보하는것만 보았지 다른 장군들이 스스로 풍장군한테 길을 양보하는걸 본적이 없습니다. 이진 너무도 공평하지 못합니다!》

풍이가 미소를 지으면서 말하였다.

《다른 사람보다 <온화하고 선량하고 공경하고 겸약하고 양보하는> 다섯 가지 미덕을 더 갖추는게 뭐가 나쁘냐!》

풍이가 인솔하는 군사는 규률을 잘 준수하기로 소문이 났다. 그의 군사들은 늘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장군께서는 우리를 관리하는데 품을 별로 들이지 않았지만 그의 일거일동이 우리에게 진작 본보기를 수립해주었습니다!》

풍이와 함께 작전하는 장령들은 평소에 쉴 때면 모여앉아 누가 어떤 전공을 세웠고 누구의 공로가 큰가 작은가 하는 말을 주고받기가 일쑤였다. 그럴 때마다 그 자리에서 풍이를 볼수가 없었다. 그럴 때면 풍이는 슬그머니 자리를 떠나 큰 나무에 기대여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여러 장령들과 병사들은 큰 나무에 기대여 앉은 풍이의 순박하고 온후한 모습을 볼 때마다 우러러 나오는 존경심을 금치 못하여 그를 《대수장군》이라고 불렀다.

한번은 광무제 류수가 군사편제를 조절하려 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장령과 병사들이 《대수장군》의 휘하에 귀속되기를 원하였다. 《대수장군》이 다름아닌 풍이라는것을 알게 된 광무제는 감탄조로 말하였다.

《정말 훌륭한 대수장군일세!》

dà xǐ guò wàng
大喜过望

대희과망

[한자 새김] 큰 대, 기쁨 희, 지날 과, 바랄 망

[우리 말] 생각밖이여서 무등 기쁘다. 예상 이외로 잘되어 몹시 기쁘다.

[뜻풀이] 원래 기대했던것보다 더 훌륭하여 대단히 기쁘다는 뜻이다.

[출처] 《한서·경포전》

[이야기] 경형은 자자형이라고도 하는데 얼굴에 글자를 새기고 바늘로 찌시고서 먹물을 스며들게 하는 형벌이다. 영포가 진나라말기에 경형을 받았으므로 사람들이 그를 경포라 불렀다.

진승과 오광이 대택항에서 봉기를 일으킨후 경포는 려산에서 3천명을 인솔하여 거사하였다. 항우가 함양에서 서초폐왕으로 자칭한후 경포를 구강왕으로 봉하였다.

초한전쟁이 벌어지자 경포는 항우의 선봉으로 되었는데 그의 무력이 강하여 한군의 장령들이 감히 대적하지 못하였다. 그는 여러번 한군에게 심대한 타격을 안겼기에 류방이 천하를 쟁탈함에 있어서의 강적으로 되었다.

후에 한차례의 싸움에서 경포가 패전하니 항우가 그의 왕직을 취소하였다. 이에 경포는 불만을 품고 항우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류방은 경포를 증오하면서도 두려워했는데 경포가 관직을 박탈당했다는 말을 듣고는 못내 기뻐하였다. 수하가 류방에게 이 기회를 빌어 경포를 설복해서 귀순시키자고 제의하였다. 류방도 그런 생각을 하던차라 즉시 동의하였다.

수하가 경포를 찾아가 말하였다.

《장군께서는 항왕을 위해 많은 전공을 세웠는데 한번 패전했다 하여 왕직을 박탈당했습니다. 한신은 용병이 귀신같아 싸우면 이기지 못한적이 없고 진공하면 공략하지 못한적이 없습니다. 장군께서 만약 한신과 맞다들어 또 패전하면 목숨을 건지지 못할가봐 저어됩니다. 한왕께서 장군을 아주 존중하는데 왜 초나라를 버리고 한나라에 와서 공을 세우려 하지 않습니까?》

경포는 반복적으로 생각하다가 마침내는 수하의 권고에 따라 항우와 작전하였다. 경포는 항우의 적수가 못되는데다가 부하 장령들과 병사들이 워낙 초나라군사여서 사기가 오르지 못해 여지없이 패배하였다. 경포는 할수없이 수하를 따라 한나라로 갔다.

류방은 경포의 오만한 태도를 꺾어놓기 위해 일부러 발을 씻으면서 경포를 인견하였다. 경포는 대로하여 온것을 후회하며 자결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물러나와서 숙소에 오니 장막과 기물, 음식, 시종이 한왕 거처의것과 꼭같았다. 이 모든것이 생각밖이여서 경포는 몹시 기뻐다. 이에 한나라에 남아 류방을 위해 많은 전투를 겪었다.

dà yì miè qīn 大 义 灭 亲

대의멸친

[한자 새김] 큰 대, 정의 의, 멸할 멸, 친할 친

[우리 말] 큰뜻을 위해서는 육친의 정도 돌보지 않는다, 멸사봉공하다.

[뜻풀이] 정의로운 일을 위해서는 부모나 형제자매도 사정을 보지 않는다는 뜻으로서 정의를 위해서는 육친의 사사로운 정도 돌보지 않음을 이르는 말

이다.

[출처] 《좌전 · 은공 4년》

[이야기] 춘추시기 로은공 4년(기원전 719년)에 위나라에서 공자 주우가 이복형님이며 임금인 위환공을 살해하고 왕위에 올랐다.

환공의 부친인 장공이 재위하고있을 때 주우를 몹시 귀여워해 주우는 거만하고 횡포한 습성이 자라났다.

대부 석작이 장공에게 간한적이 있었다.

《주우도련님을 귀엽다고 생각하시거든 빨리 태자로 정하심이 좋을것 같습니다. 도련님은 싸움을 좋아하는 성격이여서 유예하시면 란이 일어날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공이 석작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우는 석작의 아들 석후와 사이가 좋았으므로 임금이 되자 석후를 상대부로 봉하였다. 주우는 왕위에 오르는 했으나 임금을 시해한것때문에 민심을 얻지 못하였고 여러 제후국들에서도 그를 시답지 않게 여겼다.

석후는 주우가 만인이 인정할수 있는 임금으로 될 방법을 아버지인 석작에게 물었다.

《이런 대사는 주천자를 찾아뵙는것이 상책일것이다. 주천자를 찾아뵙자면 먼저 진환공을 찾아가거라. 진환공은 주천자가 신임하니까 그에게 도움을 청하면 무슨 방법이 있을것이다.》

주우와 석후가 레물을 가지고 진나라로 떠났다. 그러나 그들은 석작이 몰래 사람을 진환공에게 보내여 서찰을 전하게 한 줄은 몰랐다. 석작은 서찰에 이렇게 썼다.

《우리 위나라는 소국이고 소인은 없어서 아무 일도 할 능력이 없사옵니다. 주우와 석후는 우리 임금을 시해한 범죄자이니 그들이 진나라에 가면 부디 포박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나라에서는 주우와 석후가 도착하자마자 붙잡아 가두었다. 위나라에서 집행관을 진나라에 파견하여 주우를 처단하였다.

그때 위나라의 대신들은 석후가 석작



의 아들임을 감안하여 주우를 처단하였으니 석후를 관대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이에 석작은 동의하지 않았다.

《주우가 저지른 나쁜 일들은 거의다 석후가 주도한것입니다.》

석작은 이렇게 말하고나서 사람을 보내어 석후를 죽이게 하였다.

력사학자가 이 력사사실을 기록하고서 석작의 대공무사한 정신을 《대의멸친》이라고 칭송하였다.

dǎo lǚ xiāng yíng

倒履相迎

도리상영

[한자 새김] 거꾸로 할 도, 신 리, 서로 상, 맞을 영

[우리 말] (손님을) 반갑게 맞이하다. 부랴부랴 맞이하다.

[뜻풀이] 신을 거꾸로 신고 손님을 맞는다는 말로서 아주 열정적으로 손님을 대함을 비겨 이른다.

[출처] 《삼국지 · 왕찬전》

[이야기] 채옹은 동한시기의 유명한 문학가이며 서예가이다. 그는 또한 천문, 술수에 능할뿐만아니라 그림을 잘 그리고 거문고도 잘 탔다.

190년에 59세인 채옹이 한헌제의 좌중랑장으로 되었는데 조정의 중시를 받았고 명성이 천하에 널리 알려졌다. 채옹네 집 대문가에는 언제나 마차가 끊임 없었고 집안에는 늘 손님들이 가득 차있었다.

그때 산양 고평(지금의 산둥성 추현—편자 주)에 왕찬이라는 젊은이가 있었는데 채옹의 명성을 들은지 오래고 그의 학식을 무척 우러르던터에 불원천리 하고 장안으로 채옹을 만나뵈러 왔다.

왕찬은 당년에 16,7세의 소년이었지만 재능과 지력이 출중하여 명성을 날렸다. 한번은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길가에 있는 비석앞에서 비문을 보았다. 친구가 왕찬보고 비문을 외울수 있겠는가고 물으니 왕찬은 돌아서서 한번 열췌 본 비문을 한글자도 틀림없이 외웠다.

또 한번은 왕찬이 바둑두는것을 구경하였다. 그런데 누군가 바둑판을 다쳐 놓는 바람에 바둑돌이 흩어져 바둑을 계속 둘수 없었다. 그때 왕찬이 다가가 바둑돌을 다시 놓았는데 흩어지기전과 꼭같았다. 이에 바둑두는것을 구경하던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왕찬은 훌륭한 시를 많이 지어 후세에 남겼다.

어느날, 채옹네 집에는 손님들이 많았다. 채옹이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데 문지기가 왕찬이란 사람이 만나뵙자고 한다고 아뢰었다.

채웅은 듣고서 어정쩡해있다가 찾아온 사람의 이름을 다시한번 물었다. 문지기가 왕찬이라 하더라고 짝어 말하자 채웅은 너무 기뻐서 신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거꾸로 신은채 부랴부랴 대문쪽으로 달려나갔다.

손님들은 채웅의 거동을 보고서 필시 대단한 손님이 오시는가부다 하고 얼른 일어서서 옷깃을 여미고 손님을 기다렸다. 그런데 채웅이 데리고 들어온 손님이 왜소한 소년인것을 보고는 어안이 병병하였다. 채웅은 손님들의 심정을 헤아려 보고 왕찬을 소개하였다.

《이분은 왕찬이라는 나의 존귀한 손님입니다. 이분은 왕공의 후예로서 재능이 비상하여 나는 비길수도 없습니다. 왕찬군은 전도가 무한한분입니다!》

그후로 채웅과 왕찬은 함께 탐구하면서 심후한 우정을 맺었다.

dào xíng nǐ shī 도행역시 倒 行 逆 施

[한자 새김] 거꾸로 할 도, 행할 행, 거스를 역, 배풀 시

[우리 말] ① 도리에 맞지 않는 일을 하다. ②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다.

[뜻풀이] 집요하게 시대의 조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함을 비겨 이르는 말이다.

[출처] 《사기 · 오자서열전》

[이야기] 춘추말기에 초나라 평왕이 무고한 오자서의 아버지와 형을 살해하였다. 오자서는 간난신고를 겪어 오나라로 도망쳤다. 오자서는 합려를 도와 오왕 료를 살해하고 왕위에 오르게 하였으며 군사를 정돈하고 무예를 닦게 하여 오나라를 감성시켰다. 그런 다음 오왕을 도와 초나라를 치게 하였는데 미구에 초나라의 도움을 공략하였다. 초나라 소왕은 수나라로 도망쳤다.

지난날 초나라에 있을 때 오자서와 신포서는 친한 사이였다. 오자서가 초나라에서 도망칠 때 신포서에게 기필코 초나라를 뒤엎고말겠다고 하니 신포서는 기어코 초나라를 존속시키겠다고 하였다.

오나라군사가 초나라도움에 입성하게 되자 오자서는 소왕을 찾아다니다가 소왕을 찾지 못하니 평왕의 무덤을 찾아다녔다. 한 석공의 도움으로 평왕의 무덤을 찾기는 했는데 파헤치고서 관뚜껑을 열고 보니 평왕의 시체는 없고 의관만 있었다. 오자서는 실망하였다. 어쩌면 그밑에 진짜관이 있을것이라는 석공의 말에 더 파니 실로 평왕의 시체가 나왔다.